

한수원, 프랑스전력공사와 정기협력회의 개최

- 원전 운영 및 정비, 설비개선 분야 기술교류 적극 추진 -

한국수력원자력(주)은 3월 5일부터 3월 8일까지 본사와 울진 원자력본부에서 프랑스전력공사(EDF)와 제2차 정기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004년 2월에 체결된 한수원-EDF간 원자력협력협정에 따른 연례정기회의로 한수원과 프랑스전력공사는 이번회의를 통해 원전안전운영과 신뢰성 증진을 위해 주기적안전성평가, 기술정보 관리, 상태기준정비 및 각종 설비개선 등 13개 관심분야에 대한 상호경험과 우수사례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한수원은 지난해 20기의 원전 운영(설비용량, 17,716 MW)을 통해 국내 전력의 39%를 공급하여 고유가시대에 안정적인 에너지공급에 기여하였고 원전평균이용률 92.3%를 기록함으로써 2000년 이후 연속 7년간 이용률 90%이상을 달성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프랑스전력공사는 58기의 원자력발전소를 포함하여 총 101,300 MW의 발전설비를 운영하는 세계최대의 전력회사 가운데 하나이다. 한수원은 선진 전력회사와의 기술협력 확대를 통해 국내원전 운영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방침이다.

중부발전, 포스코와 환경에너지 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협약 체결

한국중부발전(주)은 2월 14일 대치동 포스코센터에서 (주)포스코(대표 이구택)와「환경에너지 개발 및 사업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이로서 한국중부발전(주)과 (주)포스코는 환경에너지(하수슬러

지, 생활폐기물고형연료)에 대한 연료개발, 활용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향후 국가 환경에너지 산업을 선도하고 보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원승재 기술본부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양사가 Blue Ocean 분야인 신재생에너지사업의 발굴과 환경에너지사업 추진에 있어 양사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자원재활용 체계를 공동으로 구축해 나아가야 할 것” 이라고 하면서 향후 양사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하였다.

한국중부발전은 지난 2005년 7월 정부와 신재생에너지 자발적 공급협약(RPA ; Renewable Portfolio Agreement)을 체결하고 2008년까지 약 2,4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특히 환경에너지를 포함한 바이오에너지 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하여 “Global Clean Power Company” 의 비전을 구현할 계획이다.

남동발전, UN과 신재생에너지 사업추진

최근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CO2) 저감노력에 관심을 갖고, 지구환경 업무를 총괄하는 UN 산하기구인 국제연합환경계획(UNEP) 아·태 사무소장이 친환경설비 견학을 위해 2월 23일 한국남동발전 분당복합화력을 방문해 눈길을 끌었다.

남동발전은 CO2를 줄이기 위해 ‘2012CO2 10%다운 프로그램’을 추진해 왔다.

이날 아·태사무소장은 신기술이 적용된 분당복합화력의 친환경설비를 둘러보면서 남동발전이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사업에 대하여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어 동남아시아의 저개발국가에서 UN과 공동으로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고 남동발전이 전했다.

동서발전, 모범직원에게 ‘칭찬포인트’ 적립해 준다

『복지동서 포인트권』제도 시행, 칭찬 및 격려 문화 조성 기대

한국동서발전(주)가 지난해에 이어 칭찬하고 격려하는 조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복지동서 포인트권』제도를 시행한다.

지난 2005년 수립된 복지동서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시행된 이 제도는 경영진이 사회공헌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조직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한 직원에게 ‘1만원권 칭찬쿠폰’을 지급하는 방식이며 올해로 시행 2년째를 맞이한다.

동서발전은 이 제도가 조직성과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조직목표 달성을 위한 공감대 형성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서발전은 우선 1매당 1만원 상당의 포인트권 1,500매를 제작해 전 사업소에 배부한 후 경영진 및 사업소장이 모범 직원에게 수시 지급토록 할 계획이다.

포인트권의 사용은 현재 시행중인 선택적복지제도의 개인별 복지포인트에 부가해 최초 수령자 본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타 직원에게 양도, 복지단체 기부도 가능토록 되어 있다.

동서발전은 이 제도와 같은 특색 있는 프로그램의 도입으로 참여하고 칭찬하는 조직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상호 존중과 나눔의 기업문화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이 제도의 시행을 계기로 한 단계 성숙된 기업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조직내의 벽을 허물고 직원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제도 및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부발전은 특허바람중

공기압축기, 가스터빈 국내외 특허출원 잇따라

한국서부발전 곳곳에서 특허 바람이 불고 있다.

서부발전은 자체적으로 개발한 ‘공기압축기의 라이더링 분할형 피스톤구조’가 국내 특허에 이어 미국특허출원을 등록했다고 밝혔다. 이 기술은 현장에서 라이더링을 교체정비할 때, 열박음(가열 팽창시켜 조립)하던 것을 피스톤을 분할 식으로 개선, 라이더링을 손쉽게 교체할 수 있도록 피스톤 구조를 개선한 것이다.

개발자인 서부발전 김용학 부장은 특허 3건, 실용신안 2건, 의장 5건을 이미 출원했으며, ‘2006년 한국제안명인’을 수상한 바 있다.

이 외에도 서부발전은 김용학 부장과 송영완 직원이 공동 개발한 ‘가스터빈 분해용 특수공구’ 대한 국제특허등록을 추진하고 있다.

서부발전은 발전설비 기술분야에 대한 산업재산권을 지속적으로 출원, 국제기술위상을 높여갈 계획이다.

현대중공업, UAE/두바이전력전 2007 참가

- 전세계 50여개국 800여개 업체에서 참가
- 중동지역 시장점유율 확대 및 제품인지도 향상 기대

현대중공업은 2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개최된 “2007 두바이전력전 (MEE 2007)”에 참가했다.

두바이전력전은 세계 50여개국의 800여개 업체가 참가하는 중동 최대의 전기분야 전시회로서 전세계 전기·전력 분야의



세계적 기업들이 대거 참가하였다.

이번 전시회에 현대중공업은 초고압변압기와 초고압차단기 모형, C-GIS, 중저압차단기, 인버터 그리고 전동기의 실물제품 및 그래픽을 출품하였다.

최근 중동 시장은 유가상승으로 인한 오일머니를 앞세워 대형 전력인프라 구축사업이 활발하게 발주되는 추세이며 중동지역에서의 수주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이번 전시회를 통하여 중동지역에서의 시장 점유율 확대는 물론 제품인지도를 더욱 높여 기반을 확고히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전시회에는 한국전력을 비롯하여 중소기업 및 LS산전, 대한전선 등도 참가하였다.

두산중, 사상 최대 규모 1조원 두바이 발전소 수주

두산중공업(사장 이남두)이 국내 업체가 해외에서 수행한 발전소 건설사업 중 가장 큰 규모의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두산중공업은 2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수전력청이 발주한 1조700억원(11억4천만 달러) 규모의 제벨알리(Jebel Ali) M 복합화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에 관한 수주합의서(LOA, Letter of Acceptance)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제벨알리 M 프로젝트는 그동안 두바이 수전력청이 발주한 프로젝트 중 최대 규모인 1,330MW 용량의 복합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로 이 곳에서 생산된 전력은 두바이 전역에 공급될 예정이다.

두산중공업은 이 공사를 설계에서부터 기자재 제작, 설치, 시운전에 이르는 전 과정을 도맡아 하는 EPC(Engineering, Procurement & Construction) 방식으로 일괄 수행해 오는 2010년 3월에 준공할 계획이다.

두바이 외곽의 해안지역에 위치한 제벨 알리 지역에는 두바이의 급속한 성장과 함께 전력소요량의 급증으로 지난 1980년대부터 잇달아 발전 플랜트가 건설되어 왔으며, 이번 M 프로젝트는 제벨 알리 지역에서 마지막으로 건설되는 가장 큰 규모의 발전소다.

두바이는 최근 급속한 부동산 개발 및 인공섬 팜 아일랜드(Palm Islands) 건설로 연 평균 10.6%의 폭발적인 전력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두바이 수전력청은 2012년까지 54억 달러를 투자하여 전력량을 10,000MW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두산중공업 흥성은 부사장(발전BG장)은 “그 동안 중동시장에서 보여준 두산중공업의 공사 수행능력과 기술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세계 발전시장에서 두산중공업의 위상을 한 단계 드높인 쾌거” 라면서 “이번 수주로 올 연말에 발주가 예상되는 1,200MW급 발전소 건설공사를 비롯하여 향후 두바이 수전력청이 발주할 초대형 프로젝트 수주에도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됐다” 고 말했다.

두산중공업은 지난해 12월에도 아랍에미리트에서 216MW 규모의 복합화력발전소인 알따윌라(AI Taweelah) A10 민자발전

프로젝트(IPP, Independence Power Project)를 1억7천만 달러에 수주한 바 있다.

「2007 전기공사 시공도집」 발간

국내 전기공사 시공도를 총 집대성한 “2007 전기공사 시공도집”이 한국전기공사협회(발행인 주창현)에서 지난 2월 12일 발간되었다.

이 책은 전기공사 시공상황을 상세도면으로 표현하고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내선규정 등 관련 근거조문을 명시하여 현장기술자로서 하여금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동안 발간되었던 시공도집 1, 2, 3, 4를 기초로 765kV 송전설비, 태양광발전설비 및 전기철도, 전력IT 등의 상세도를 추가한 증보판이며, 책자는 A4규격으로 총 16장 873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전기공사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국내 전기관련 도서 중 모든 내용을 CAD 파일로 원고를 작성하여 책자를 제작하



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약 2년간에 걸쳐 국내 전기공사 관련 전문가 20명이 참여하였고, 전기설비기술기준 관리기관인 대한전기협회 및 한국전기안전공사의 감수 및 기술검토를 각각 받은 바, 현장에서 시공방법의 길잡이로서 전기공사업계 종사자의 훌륭한 시공지침서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하였다.

판매는 한국전기공사협회 중앙회(기술지원실) 및 각 시·도회 사무국을 통해 판매하며, 자세한 내

용은 전기공사협회 인터넷 홈페이지(www.keca.or.kr) 공지사항에 등록되어 있다. <문의 02-3219-0554-6>